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관한 연구

오현수¹, 정혜선^{2*}

¹인하대학교 간호학과, ²청주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Nursing Students'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Hyun-Soo Oh¹ and Hye-Sun Jeong^{2*}

¹Department of Nursing, Inha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Cheo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충청북도 소재 일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 88명(실험군: 47명, 대조군: 41명)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결과변수로는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공감 정도가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간호대학생의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나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들은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대한 제한점으로 1회성의 단편적 경험, 노화에 대한 불안감 야기, 체험복장의 현실감 부족, 체험 과정 중의 사고 위험성 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제한점이 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들을 고려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제공한다면 중재가 간호 대학생들의 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공감적 이해증진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lderly patient's simulation experience on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nd empathy of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Study results showed that elderly patient's simulation experience did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s toward elderly or elderly patients, whereas it had significant effect on enhancing the empathy on elderly patients. The subjects of experimental group indicated that the factors decreasing the effect of intervention are single event of experience, raising aging anxiety, lack of the reality of simulation clothing, and risk of accident during simulation experience, etc. In order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lderly patient's simulation program,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improve those limiting factors identified from this study, and to continue to work on positive effects of elderly simulation applied for their curriculum.

Key Words : Aged, Attitude, Empathy, Nursing Student, Simulation Experien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노인의 반수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1] 노인 간호 문제나 노인 간호 전문 인력에 대한 요구는 향후 건강관리 분야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간호학

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경우 미래 노인 간호의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대표적 전문 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생의 주기상 아직 노인의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노화현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화에 대해 공감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 뿐 아니라 현재 대학생 연령층 인구 중 12%만이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으며, 주변에서 알고 지내는 노

*Corresponding Author : Hye-Sun Jeong(Cheongju Univ.)

Tel: +82-43-229-7922 email: hsjeong@cju.ac.kr

Received April 9, 2013

Revised May 28, 2013

Accepted July 11, 2013

인이 있는 경우는 16.4%에 불과하여[2] 노인과의 실제적인 경험이 매우 부족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처럼 노인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 및 경험의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져 훗날 노인 환자에 대한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간호학 전공의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한 교육적 전략과 개입이 필요하다.

학습을 통해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4]. 즉 특정한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해당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해란 대상에 대해 단순히 알게 되는 차원이 아니라 공감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대상자의 입장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근거 하에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접근으로 노인유사체험이 흔히 적용되어 왔다.

노인유사체험은 ‘젊은 세대가 고령자가 된 이후의 신체와 감각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세대간의 이해를 돕고 통합을 추구하는 체험학습’인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5]. 평소 경험이 적거나 잘못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내용의 경우는 강의를 통한 학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정관념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6-8]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이 실제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인유사체험은 노인에 대한 경험이 적거나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노인환자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돕는데 있어 적합한 교육방법이라 판단된다.

그동안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노인유사체험을 시행한 국내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나[9-12] 이러한 연구들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이러한 연구들의 노인유사체험의 내용이 '핸드폰 통화하기', '글자 읽기', '계단 오르내리기', '복도 걷기' 등 주로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 노화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인환자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노인유사체험에 대한 결과변수들이 타당도 구축이 이루어진 도구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된 바 있어[6,13]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었다. 끝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은 노인유사체험자들이 노인들이 노화에 대해 호소하는 사항들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음에도

[11] 불구하고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공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가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노인환자에 대한 유사체험 중재를 개발하여 중재가 대상자들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뿐 아니라 공감의 수준을 향상시켰는가를 검증하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측정도구로 이러한 결과변수들을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 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노인유사체험에 참여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유사체험으로 인해 노화현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등 오히려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고함으로써[11,14] 노인유사체험이 노인을 이해 및 공감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노인유사체험이 가진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따라서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대한 효과와 아울러 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래 노인 건강관리의 대표적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학 전공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유사체험 중재를 제공한 후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세부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환자 유사체험 중재가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2) 노인환자 유사체험 중재가 간호학 전공 대학생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 3)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노인환자 유사체험 중재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들을 규명한다.

1.3 연구가설

가설 1: 중재 후 실험군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대조군에 비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 중재 후 실험군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대조군에 비해 더욱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3: 실험 후 실험군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높을 것이다.

1.4 용어의 정의

1.4.1 노인환자 유사체험

노인유사체험은 젊은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노인체험 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인의 신체와 감각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도록 하는 중재를 말한다[5]. 한편, 본 연구에서 제공한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노인체험복을 착용한 상태로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경우 경험하게 되는 활동들, 예를 들어 환의입기, 침대사용하기, 약물복용하기, 휠체어 타보기 등을 체험하도록 하는 중재를 의미한다.

1.4.2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태도는 한 대상에 대한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15,16]. 본 연구에서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Montgomery, Pittman, & Balkwell (1984)[17]이 젊은 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의미분별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의미분별 척도’[17]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1.4.3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18,19]으로, 본 연구에서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은 Varkey, Chutka, & Lesnick (2006)[20]이 의과대학생의 노인환자 돌봄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한 도구 11문항 중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을 측정하는 3 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와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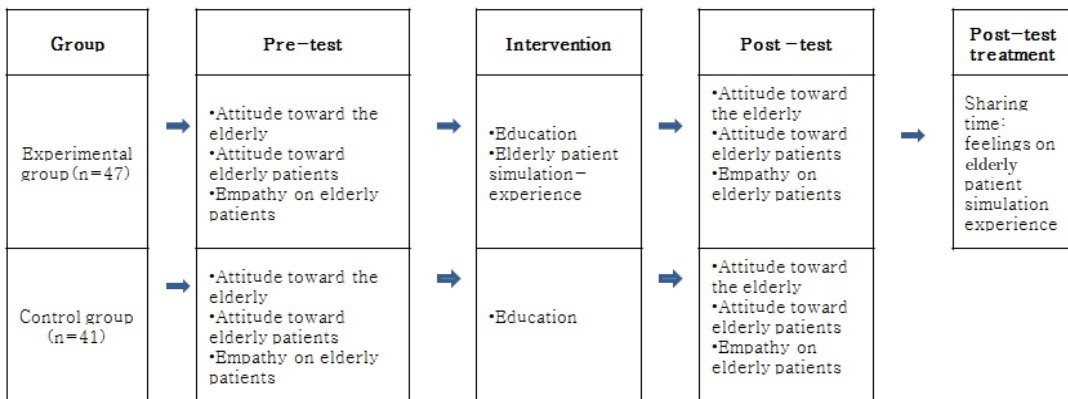
2.2 연구대상 및 기간

2012년 3월 19일부터 2012년 5월 25일까지 충청북도 소재 대학교의 간호학과 2학년 학생 90명을 실험군(47명)과 대조군(43명)으로 나누어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실시하였다. 대조군 중 사후설문지 작성을 하지 않은 1명과 휴학생 1명이 제외되어 총 88명(실험군 47명, 대조군 41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효과크기 0.30, $power(1-\beta)=.80$, 2회 반복측정 등의 자료로 G*power 3.1을 적용하여 대상자수를 산출한 결과 총 24명(실험군과 대조군 각 12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과정 중의 오류를 고려하여 산출된 표본 숫자 보다 많은 8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정력 분석(power analysis)을 위한 효과크기는 노인유사체험 중재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11]에서 보고한 결과를 기초로 산출하였다.

2.3 자료수집절차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의 참여가 성적과는 무관하며 자유 의지에 따라 연구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았다. 연구대상자가 일개 대학교의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중재효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의 자료수집을 종료한 후에 실험군의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우선 대조군($n=41$)에게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 관련 특성,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등의 사전자료를 측정하였고, 2주 후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인환자에 대한



[Fig. 1] Research process step

공감 등의 사후자료를 측정하였다. 한편 실험군은 대조군의 자료수집이 종료된 후 대상자의 일반적 및 노인 관련 특성,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등의 사전자료를 측정 후 사전교육과 함께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실시하였으며 체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와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등의 사후자료를 측정하였다. 실험군의 경우 모든 연구과정(중재 및 자료수집)을 마친 후 2개의 팀(25명 versus 22명)으로 나누어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대한 경험 및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4 중재

2.4.1 사전교육

실험군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유사체험에 앞서 갑작스런 신체적 노화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시키고자 1회 약 30분간 본 연구자가 직접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전교육의 내용에는 신체적 노화, 체험복 구성과 체험복 착용 후 주의점 등이 포함되었다.

2.4.2 노인환자 유사체험

(1) 체험복 구성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노인이 되었을 때와 유사한 신체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체험복(일본 사카모토사 제작)을 이용하여 실시하였. 체험복은 체험복과 팔꿈치 억제대(1쌍), 무릎 억제대(1쌍), 장갑(1쌍), 안경, 귀마개, 지팡이로 구성되었다[Table 1].

(2) 노인환자 유사체험 내용

노인병원 경력간호사 1인과 노인전문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노인간호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유사체험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노인병원 근무경험이 20년 이상인 간호사 1인으로 하여금 구성된 체험내용이 적합한가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체험내용은 노인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흔히 경험하게 되는 활동으로 환의입기, 침대사용, 약물복용(알약, 물약, 가루약), 휠체어이용, 이동식변기이용, 복도걸기, 계단 오르내리기, 스트레처카 이용 등이었다 [Table 1].

(3) 노인환자 유사체험 과정

중재를 시작하기 전 유사체험에 필요한 준비물과 물리적 환경을 미리 마련한 후에 본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들에게 노인환자 유사체험 내용을 시연하였고 모든 대상자가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하는 동안 본 연구자의 감독과

지도를 받았다.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신체적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하는 대상자 1명과 체험 과정을 도와주는 보조자 2명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시행하였다.

모든 체험자에게 중재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제공하였으며 보조자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만 유사체험자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유사체험자는 지정된 활동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적 점검표를 제공하여 한 활동이 끝날 때마다 점검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2.4.3 소감나누기

소감나누기는 실험군의 노인환자 유사체험이 모두 종료된 후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소감나누기는 25명과 22명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 약 20분간 진행되었는데 체험자들이 자유롭게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느낌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노인환자 유사체험으로 인한 노화의 두려움이나 사고발생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대상자들에게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통된 정서임을 알려주어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을 표현하는 대상자들은 격려함으로써 유사체험의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1] Contents and Equipments for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Category	Simulation activities	Equipment
Putting on and off the cloths	Putting on and off the gown	Patient gown
	Sitting on the bed	
Using Bed	Getting out of bed	Patient bed
	Taking a daggling position	
Patient Education	Reading a leaflet	Leaflet
	Listening education from nurse	
Taking Medication	Taking a pill	Vitamin complex pill/water
	Taking a powder	Vitamin C powder
	Taking liquid type of medicine	Milk/Measuring cup
Mobility	Using stretcher car	Stretcher car
	Using Wheel chair	Wheel chair
	Walking along corridor	Cane
	Go up and down stairs	
	Using Commode	Commode

2.5 연구도구

2.5.1 노인에 대한 태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Sanders 등(1984)[17]이 선행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젊은 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개발한 의미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도구는 “좋은-나쁜”과 같이 상반되는 형용사 쌍으로 구성된 20문항, 7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20~1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간 호화 전공의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도구의 문항이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가를 평가함으로써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 당시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alpha=.96이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Cronbach's alpha=.92이었다.

2.5.2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Sanders 등(1984)[17]이 개발한 의미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의미분별 척도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을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도구는 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alpha=.90이었다.

2.5.3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은 Varkey 등(2006)[20] 이 의과 대학생의 노인돌봄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Maxwell과 Sullivan(1980)[21]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이용한 11문항 중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과 관련된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나는 노인환자를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다’, ‘나는 노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이해한다’, ‘노인환자에 대한 이해는 가치 있는 일이다’ 등 3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로 Varkey 등(2006)[20]의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수준이 낮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한 후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정도가 높도록 수정하여 이용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61로 나타났다.

2.5.4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

선행연구 결과들[11,12,14]을 바탕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사용하여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사체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은 1) 일회성 체험

이 가진 한계, 2) 노화 불안감 야기, 3) 체험복의 현실감 부족, 4) 신체적 손상의 위험성 등이었다. 대상자로 하여금 이러한 요인들 중 어떤 요인이 자신의 유사체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각되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노인환자 유사체험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조사는 탐색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구한 후 동질성 검증을 위해 χ^2 -test를 시행하였고, 대상자의 노인과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및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구한 후 중재 전과 후의 차이 및 집단 내와 집단 간 변수들의 차이는 독립 t-test와 짝짓기 t-test로 검증하였다. 또한 체험자가 지각하는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감소 요인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값으로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검증

실험군과 대조군의 성별, 연령, 종교, 노인관련 자원봉사 경험, 노인에 대한 관심, 노인간호 종사방향,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관련 교육수강 경험, 의미 있는 노인 유무 등 일반적 및 노인관련 특성에는 차이가 없었다[Table 2].

3.2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 평가

3.2.1 노인에 대한 태도

중재 전 두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동질하였으므로($t=.27, p=.792$), 중재 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3]. 검증 결과 실험군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64.70 ± 14.72 점, 대조군은 67.27 ± 13.70 점으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75, p=.454$). 또한 각 집단의 노인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전 67.62 ± 18.52 점에서 중재 후 64.70 ± 14.72 점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t=1.32, p=.194$), 대조군의 태도는 중재 전 66.61 ± 16.97 점에서 중재 후 67.27 ± 13.70 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28, p=.781$)[Table 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Homogeneity Test of Subjects' Characteristics (N=88)

Variable	Category	Total n(%)	Exp.(n=47) n(%)	Cont.(n=41) n(%)	$\chi^2(p)$
Gender	Female	79(89.8)	40(45.5)	39(44.3)	0.17(.115)
	Male	9(10.2)	7(8.0)	2(2.3)	
Age(year)	≤ 19	45(51.5)	27(30.7)	18(20.5)	2.85(.146)
	≥ 20	43(48.9)	20(22.7)	23(26.1)	
Religion	yes	41(46.6)	21(23.9)	20(22.7)	0.83(.442)
	no	47(53.4)	26(29.5)	21(23.9)	
Experience of taking a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yes	3(3.4)	2(2.3)	1(1.1)	1.00(.552)
	no	85(6.6)	45(51.1)	40(45.5)	
Interested in elderly	yes	46(52.3)	27(30.7)	19(21.6)	0.39(.204)
	no	42(47.7)	20(22.7)	22(25.0)	
Intention to be a gerontological nurse in the future	yes	26(29.5)	15(17.0)	11(12.5)	0.65(.388)
	no	62(70.5)	32(36.4)	30(34.1)	
Cohabitation with elderly(present)	yes	10(11.4)	8(9.01)	2(2.3)	0.10(.071)
	no	78(88.6)	39(43.3)	39(43.3)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 (present)	negative	5(50.0)	4(40.0)	1(10.0)	0.00(1.000)
	positive	5(50.0)	4(40.0)	1(10.0)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yes	47(53.4)	25(28.4)	22(25.0)	1.00(.568)
	no	41(46.6)	22(25.0)	19(21.6)	
Experience of cohabitation with elderly(past)	negative	16(34.0)	9(19.1)	7(14.9)	0.09(.763)
	positive	31(66.0)	16(34.0)	15(31.9)	
Presence of significant elderly	yes	30(34.1)	18(20.5)	12(13.6)	0.50(.253)
	no	58(65.9)	29(33.0)	29(33.0)	
Experience with significant elderly	negative	10(33.3)	5(16.7)	5(16.7)	0.63(.429)
	positive	20(66.7)	13(43.3)	7(23.3)	
Volunteer service related to the elderly	yes	64(72.7)	35(39.8)	29(33.0)	0.81(.438)
	no	24(27.3)	12(13.6)	12(13.6)	
Experience of volunteer service related th the elderly	negative	28(43.8)	14(21.9)	14(21.9)	0.44(.506)
	positive	36(56.3)	21(32.9)	15(23.4)	

*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3.2.2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중재 전 두 집단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가 동질하였으므로($t=-.83, p=.406$), 중재가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후 실험군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는 90.51 ± 13.39 점, 대조군은 95.17 ± 14.33 점으로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58, p=.118$). 또한 각 집단의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재 전-후로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중재 전

91.28 ± 14.27 점에서 중재 후 90.51 ± 13.39 점으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고($t=.35, p=.732$), 대조군은 중재 전 93.73 ± 13.17 점에서 중재 후 95.17 ± 14.33 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역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45, p=.770$)[Table 3].

3.2.3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중재 전 노인에 대한 공감은 두 집단이 동질하였으므로($t=1.56, p=.123$), 중재가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중재 후 실험군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은 12.00 ± 1.76 점, 대조군은 11.12 ± 1.71 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38, p=.020$). 또한 집단 내의 중재 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실험군은 11.40 ± 1.94 점에서 12.00 ± 1.76 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고($t=-2.67, p=.010$), 대조군의 경우도 10.78 ± 1.80 점에서 11.12 ± 1.71 점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t=-1.25, p=.220$)[Table 3].

[Table 3] Effects of Elderly Patients Simulation Experience on Attitudes toward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nd Empathy on the Elderly Patients (N=88)

Item	Group	baseline	Post intervention	Within group difference t(p)
Attitude toward the elderly	Exp.*	67.62(18.52)	64.70(14.72)	1.32(.194)
	Cont.**	66.61(16.97)	67.27(13.70)	-0.28(.781)
Between group difference	t(p)	0.27(.792)	-0.75(.454)	
Attitude toward elderly patient	Exp.*	91.28(14.27)	90.51(13.39)	0.35(.732)
	Cont.**	93.73(13.17)	95.17(14.33)	-0.45(.770)
Between group difference	t(p)	-0.83(.406)	-1.58(.118)	
Empathy on elderly patient	Exp.*	11.40(1.94)	12.00(1.76)	-2.67(.010)
	Cont.**	10.78(1.80)	11.12(1.71)	-1.25(.220)
Between group difference	t(p)	1.56(.123)	2.38(.020)	

* Exp. = Experimental group, Cont. = Control group

3.3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 감소요인

체험자가 응답한 노인환자 유사체험 효과 감소요인은 '1 회성 경험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들다'가 55.3%(26명) 이었고, '노화불안이 야기되었다'가 46.8%(22명), '체험 복장이 현실감이 부족하다'가 42.6%(20명), '체험과정 중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가 23.4%(11명)이었고 기타 '노인

환자의 사회·심리적 노화를 경험하기 어렵다'가 2.1%(1명) 이었다[Table 4].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Factors Decreasing the Positive Effects of Elderly Patient Simulation Experience (N=47)

Factors	n(%)
Not being enough to get the positive effect with a single experience of simulation	26(55.3)
Increase in aging anxiety due to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22(46.8)
Lack of the reality in simulation clothing (that is, unable to represent the real elderly)	20(42.6)
Possibility of being physically injured when wearing simulation clothing	11(23.4)
Miscellaneous: difficulty in experiencing psycho-social aging	1(2.1)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의 대학생이 경험한 노인환자 유사체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노인유사체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9,11,12,14]이 체험의 내용을 일반적인 신체노화를 경험하도록 구성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환의입기, 약물복용, 침대 사용 등과 같이 노인환자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간호대학생의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에는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으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향상에 대하여는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들 중 일부는 노인유사체험 후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11,12,22] 반면, 소수의 연구에서는 유사체험 후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고하였다[9,23]. 이처럼 연구에 따라 노인 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적이지 않아 일반화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태도 개선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23]나 유의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11,12,22] 모두 공통적으로 노인유사 체험이 노인에 대한 신체적 및 심리·사회적 차원의 공감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노인환자 유사체험이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 수준은 유의하게 증진시킨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선행연구 결과들에 부합되었다.

노인유사체험의 일차적인 목적은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노인과의 경험이

나 이해가 부족한 간호대학생들이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통해 대상에 대한 공감 정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은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교육적 가치를 한층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개발 및 증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4]. 다만 유사체험을 통한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증진이 어떻게 노인 및 노인환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노인 유사체험 관련 연구에 남겨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사체험이 노인에 대한 공감적 이해증진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하고자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노인유사체험의 방법론적 취약점을 탐색 및 규명하여 향후 유사체험의 개발과 적용에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유사체험의 효과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에 대해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사실현 체험에 참가한 대상자의 55.3%가 유사체험이 일회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46.8%는 유사체험이 노화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유사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42.6%는 체험복장의 현실성 부족이 유사체험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23.4%는 유사체험 중 감지되는 사고의 위험성이 유사체험의 효과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25]에 따르면 일회성 체험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하며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체험의 횟수, 체험 대상자의 준비도, 체험의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근거에 입각하여 볼 때, 대상자의 노인에 대한 지식 부족은 유사체험의 효과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노인간호학 과목에 대한 수강을 마치고 노인간호학 실습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제공한다면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높임으로서 교육적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며 단일 체험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사전교육, 노인환자 유사체험, 소감나누기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형태의 체험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유사체험 관련 선행연구들[11,12,14]에서 체험복 착용 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던 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3인 1조로 유사체험을 시행하고 휠체어나 환자운반차를 이용할 때 반드시 잠금장치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움직임이 힘들 경우 도움을 청하도록 교육하는 등 사고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여러 예방책들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자들은 여전히 사고의 위험을 우려하였다. 반면, 연구에 따

르면 체험자들 중 일부는 유사체험을 ‘신기하고, 기대되는’ 이벤트성 행사로 인식하기도 하여 체험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5]. 따라서 사전교육 과정을 통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의미와 목적을 주지시키는 등 체험자들로 하여금 유사체험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요원이 전체 체험 과정을 잘 조정함으로써 체험자들이 체험과정을 학습의 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체험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노인유사체험 교육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노인환자에게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사체험의 내용을 신체적 노화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노인생애체험관의 경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위한 이러한 체험관은 아직 개발된 바가 없다. 앞으로 노인환자 간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간호학 전공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사체험의 내용을 학문적 특성에 맞게 고안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14,26-28]에서 체험 후 소감나누기를 시행하여 노화불안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체험경험을 공유한 것과 같이 유사체험 후 체험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유사체험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년기 성인에게 유사체험을 제공한 결과에 따르면, 체험을 통해 막연했던 노화불안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인지되면서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29]. 그러나 청년기의 간호대학생의 경우는 체험 후 노화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14,30] 유사체험의 이러한 역기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본다. 체험자들의 신체적 노화와 관련된 불안이 적절히 해결하지 않을 경우 노화 및 노인에 대한 관념이 우울함, 두려움,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것으로 고정될 우려가 있다.

노인기는 인생의 발달단계 중 한 시기이며 우리 미래의 모습이다. 젊고 건강한 간호대학생이 노인환자와 같은 수준에서 노화를 지각하기는 불가능하나 그 인식의 간격을 좁히고 세대간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환자의 증가와 노인간호에 대한 요구도 상승은 전인적인 노인간호가 현실적인 과제임을 부각시켰다. 앞으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현장에서 만나게 될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도모하고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인간호학 교육과정에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포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접근이며 유사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

제점과 역기능 요인들을 수정·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한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2012년 간호학과 2학년 학생 88명을 실험군(47명)과 대조군(41명)으로 나누어 노인환자 유사체험을 실시한 후 노인환자에 대한 태도 및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수준을 파악하였고, 실험군은 실험 후 체험관련 질문에 응답하였다.

노인환자 유사체험은 간호대학생의 노인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노인환자에 대한 공감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젊은세대인 간호대학생이 신체적 노화상태를 공감하고 노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효과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체험자들은 1회성 경험의 한계성, 노화불안 경험, 체험복장이 현실감이 부족, 체험 중 사고의 위험성 등 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므로 이후 진행되는 노인유사체험에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상으로 노인환자 유사체험이 대상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증진을 통해 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효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악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노력과 노인환자 유사체험의 긍정적 효과를 살려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Y. M. Kwon, E. J. Yeun, "The self rated health status and related factors in urb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 3B, pp. 1289-1305, 2009.
- [2] H. S. Jeong,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to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4B, pp. 2025-2037, 2012.
- [3] K. R. Park, Y. S. Yi,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1, No. 2, pp. 71-83, 2001.
- [4] S. J. Kim, C. S. Lee, B. Y. Kim, B. S. Choi, Y. R. Kweon, "The effect of multi cultural understanding

- program on social distance, attitude toward multi cultures and ra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2, No. 1B, pp. 211-225, 2010.
- [5] Y. O. Lim, S. H. Ryu, J. E. Seok, "Experience process of the undergraduates; aging simulation game",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4, pp. 263-284, 2011.
- [6] Y. J. Kim, "Experiencing is a better way to learn: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and aging and self-examination on ageism through aging simulation among college student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 27, No. 3, pp. 101-120, 2011.
- [7] L. M. Ellio, "Older adult issues and experiences through the stories and images of file", Journal of Teaching in Social Work, Vol. 27, pp. 271-282, 2007.
- [8] R. J. Kraft, M. Sakofs, *The theory of experiential education*, Boulder CO: Association for Experiential Education, 1985.
- [9] S. H. Baik,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the application of a senior simulation for changing to a positive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1, pp. 5-12, 2007.
- [10] H. S. Jegon, S. Y. Han, "The effects of an elderly nursing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3B, pp. 1453-1466, 2012.
- [11] H. S. Jeong, E. J. Kim, J. H. Kim, "Experience of aging simulation clothes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1, pp. 141-157, 2010.
- [12] H. S. Oh, H. S. Jeo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gerontological nursing education program: consist of knowledge about nursing care for elderly and elderly simulation experi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4, pp. 1654-1664, 2012.
- [13] S. G. Kim, H. Y. Lim, "The effects of a senior simulation program on juvenil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37, pp. 225-248, 2007.
- [14] H. S. Jeong, J. S. Han, J. H. Kim, "Influencing of the senior simulation program on aging anxie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1, No. 12, pp. 832-843, 2011.
- [15] E. Phil, *Attitudes and Persuasion*, Psychology Press (UK), 2001.
- [16] W. I. Thomas, F. Znaniecki, *The polish peasant in europe and america*, Boston: Badger, 1918.
- [17] G. F. Sanders, Jr. J. E. Montgomery, Pittman, C. Balkwell,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3, No. 1, pp. 59-70, 1984.
- [18] J. Y. Yeo,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n of the empathy quotient-short form",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c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1, pp. 5356-5363, 2012.
- [19] V. Price, J. Archbold, "What's it all about empathy?", Nurse education today, Vol. 17, No. 2, pp. 106-110, 1997.
DOI: [http://dx.doi.org/10.1016/S0260-6917\(97\)80026-3](http://dx.doi.org/10.1016/S0260-6917(97)80026-3)
- [20] P. Varkey, D. S. Chutka, T. G. Lesnick, "The aging game: Improv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car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American Medical Directors Association, Vol. May, pp. 224-229, 2006.
- [21] A. J. Maxwell, N. Sullivan, "Attitude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among family practice resident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Vol. 28, No. 8, pp. 341-345, 1980.
- [22] S. J. Yu, S. M. Kim, Y. J. Lee, "The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nurse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4, No. 6, pp. 974-982, 2004.
- [23] S. W. Choi, M. H. Park, "Effect of senior simulation on geriatric unit nurses' attitude and job satisfaction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2, pp. 513-527, 2009.
- [24] S. Mete, "The empathic tendencies and skills of nursing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35, No. 9, pp. 1181-1188, 2007.
DOI: <http://dx.doi.org/10.2224/sbp.2007.35.9.1181>
- [25] D. A. Klein, K. J. Council, S. L. McGuire, "Education to promote positive attitudes about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1, No. 8, pp. 591-601, 2005.
DOI: <http://dx.doi.org/10.1080/03601270591003355>
- [26] J. Pacala, C. Boulton, K. Hepburn, "Ten years' experience conducting the aging game workshop: was it worth it?",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Vol. 54, No. 1, pp. 144-149,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532-5415.2005.00531.x>
- [27] S. B. Robinson, R. B. Rosher, "Effect of the "Half-Full Aging Simulation Experience" on medical students' attitudes",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Vol. 21, No. 3, pp. 3-12, 2001.
DOI: http://dx.doi.org/10.1300/J021v21n03_02

- [28] M. D. Wood, "Experiential learning for undergraduates: a simulation about functional change and aging", *Gerontology & Geriatrics Education*, Vol. 23, No. 2, pp. 37-48, 2002.
DOI: http://dx.doi.org/10.1300/J021v23n02_03
- [29] Y R. Lee, "The effects of a senior simulation on the aging anxiety of the middle aged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46, pp. 193-214, 2009.
- [30] B. W. Henry, C. Douglass, I. M. Koswita, "Effects of participation in an aging game simulation activity on the attitude of allied health students towards older adults", *The Internet Journal of Allied Health Sciences and Practice*, Vol. 5, No. 4, pp. 1-9, 2007.

오 현 수(Hyun-Soo Oh)

[정회원]



- 1990년 8월 : Univ. of Texas at Austin (간호학석사)
- 1993년 5월 : Univ. of Texas at Austin (간호학박사)
- 1995년 9월 ~ 현재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 재활간호, 간호중재

정 혜 선(Hye-Sun Jeong)

[정회원]



- 199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석사)
- 2001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 1997년 3월 ~ 2010년 7월 : 강동대학교 간호과 부교수
- 2010년 7월 ~ 현재 : 청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노인에 대한 태도, 공감, 건강증진